

I. 조사개요

1. 사 명 : 사내면 용담리(885번지) 곡운영당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 조사경위 및 목적

화천군에서는 사내면 용담리 885번지 일대에 곡운 김수증에 대한 성역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현재 이 일대는 곡운 김수증의 영당지로 현재 외곽에 보호 헨스가 둘러져 있고, 헨스 안에는 위아래로 단이 형성되어 있다. 윗단 북쪽 중앙에는 김수증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아랫단에는 건물지의 초석이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곡운 영당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유적범위와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추후 영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조사지역 및 범위

지 번	면 적(m ²)	비 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5번지	833m ²	허가 제2017-0386호

4. 조 사 기 간 : 2017년 03월 30일 ~ 2017년 04월 현재까지

5. 조사의뢰자 : 화천군

6. 조 사 기 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7.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지현병((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장)
- 자 문 위 원 : 심재연(한림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최영철(경동대학교 교수)
- 책임조사원 : 윤석인((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기획연구실장)
- 조 사 원 : 이창현((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2팀장)
- 준 조 사 원 : 송석명((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조지은((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연구원)

Ⅱ. 조사지역의 위치와 환경

1. 자연·지리적 환경¹⁾

조사지역이 위치한 화천군은 강원도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양구군, 서쪽은 철원군과 경기도 포천군, 남쪽은 춘천시, 북쪽은 철원군과 그 경계를 접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머리끝인 금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광주산맥이 화천군을 거치면서 형성된 해발 1,000m이상 십여 개의 높은 산이 솟아 있어, 군 면적의 86.2%가 산지인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화천군은 모두가 북한강 수계에 속하며, 인공호수인 파로호(破虜湖)와 춘천호(春川湖)가 있다. 파로호는 1943년에 준공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호수로 어류자원이 풍부하다. 하류에 위치한 춘천호는 1965년에 준공된 담수호이다. 또 화천군에는 지촌천, 간척천, 화천천, 풍산천 등의 여러 개의 지류가 분포한다.

화천군 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경기 변성암 복합체 및 춘성계 주라기의 대보화강암, 시대 미상의 화강반암 또는 애플라이트와 제 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북한강 본류천변은 사양질 내지 사질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산간곡지는 대부분 자갈이 많은 치양질의 충적토가 대부분이며, 구릉지 및 산곡간지에 분포하는 자갈이 있는 사양질 및 치양질 토양으로서 배수는 양호한 편이나 곳에 따라 토양침식이 이루어진 곳이 많다.

화천군 일원은 한반도의 내륙중앙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내륙산간지방의 대륙성기후의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으며, 기온은 대체로 여름에는 고온, 겨울철에는 저온을 나타내고 기온의 교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바람은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이 주를 이루고,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내륙으로부터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과 여름철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몰려오는 습기가 태백산맥에 부딪혀 많은 편이다. 겨울철의 강설량은 주로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저기압 때문에 강원도 영동지방의 강설량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다.

2.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배경

화천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87년 평화의 댐 건설을 계기로 실시한 양구 상무룡리유적²⁾ 조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함께 실시한 화천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와 이후에 강원대학교박물관(1996)³⁾과 한림대학교박물관(2006)⁴⁾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를 통해서도 화천읍과 간동면 등지에서 구석기가 수습되어 구석기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1) , 1988, 『華川郡誌』.

한림대학교박물관,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華川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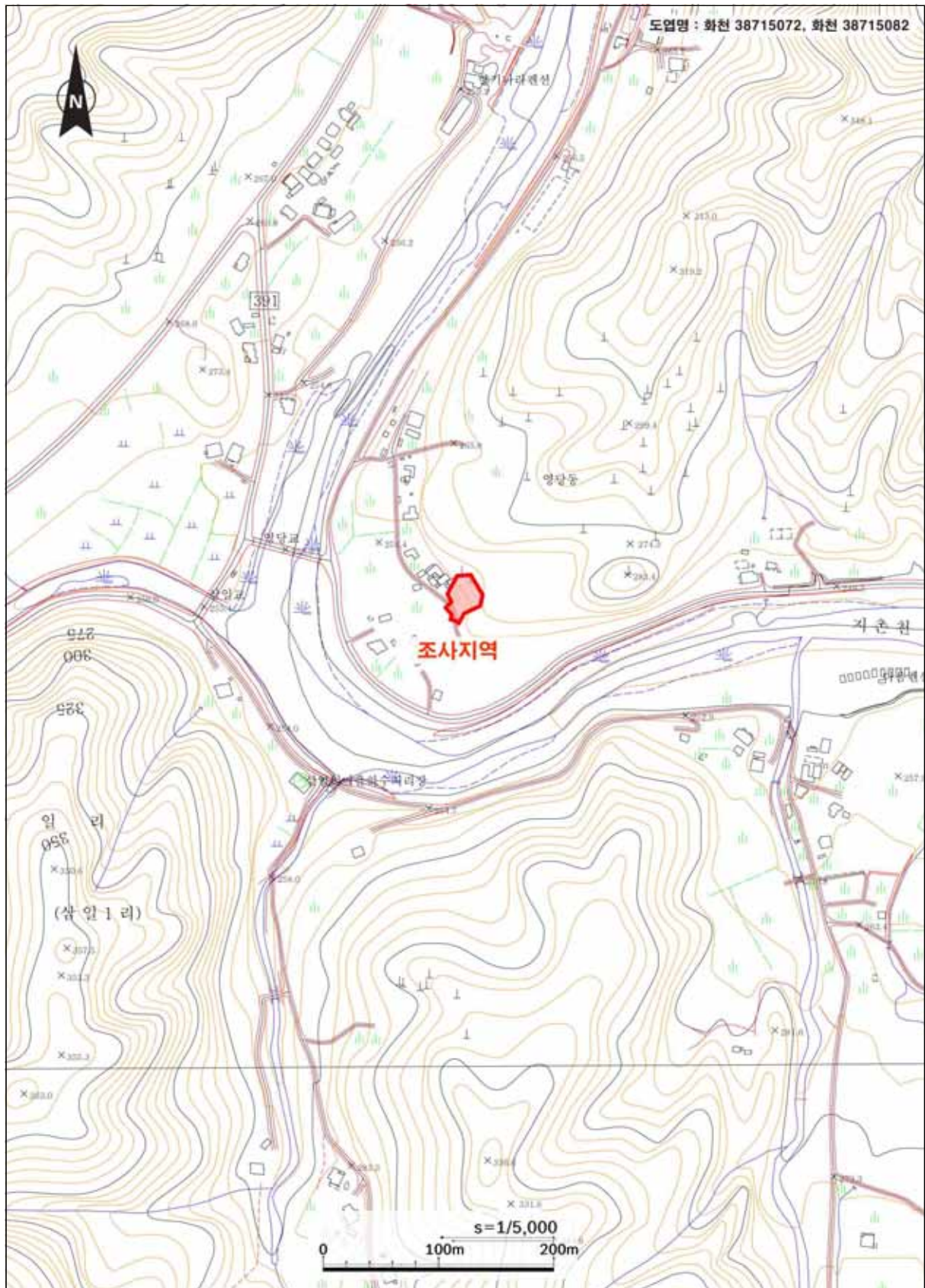
2) 강원대학교박물관, 1989, 『상무룡리』.

3)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화천의 역사와 선사유적』.

4) 한림대학교박물관, 2006, 앞의 책.



【사진 1】 위성사진 상의 조사지역



【도면 1】 수치지형도상의 조사지역 위치도(1:5,000)

그러나 화천군의 선사문화에 대해서는 용암리 일대에 대한 대규모 구제발굴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후대의 반복적인 점유에 의해 확인되는 예는 드물지만 거례리(1지구 4구간 B구간)유적⁵⁾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1동, 용암리유적 II⁶⁾과 거례리(1지구 5구간)유적⁷⁾에서 야외노지와 집석식 노가 각각 조사되었고, 용암리유적 I⁸⁾과 위라리 123번지 유적⁹⁾, 거례리(1지구 3구간)유적의 지표와 체토면에서 즐문토기가 출토되어 위라리로부터 용암리, 거례리에 이르는 긴 층적지상에 신석기시대 이래로 유적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시가지가 형성된 화천 읍내에서도 청동기시대 유물이 有光教一(1938)에 의해 보고되었거나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¹⁰⁾된 바 있으나, 청동기시대 유적은 위라리-용암리-거례리 일대 유물산포지와 원천리 유물산포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거례리 유적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위라리 유물산포지 내에 위치한 위라리 123번지 유적에서는 시굴조사를 통해 철기시대 주거지 3동, 청동기시대 주거지로 추정되는 장방형 주거지 26동이 확인되었으며 유물 중에는 돌대각목문토포기편이 수습되었다. 용암리 유물산포지에는 북쪽으로부터 「용암리유적 I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용암리유적II(부다리고개 사토장부지)-용암리유적III¹¹⁾(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부지)」이 위치한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용암리유적 I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69동을 비롯해 굴립주, 석관묘, 토광묘, 조선시대 발유구 등이 조사되었고, 그 남쪽에 인접한 용암리유적II에서는 앞서 언급한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1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이 확인되었다. 용암리유적II의 동쪽 내측에 인접한 용암리유적III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1동, 청동기시대 구상유구, 주혈군, 야외노지, 청동기~철기시대 수혈유구를 비롯해 조선시대 주거지 6동, 민묘, 암거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실제 조사된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으로는 거례리(1지구 4구간)유적¹²⁾에서 조사된 주구묘 1기와 원천리유적¹³⁾에서 조사된 석관묘 1기가 있고, 거례리(1지구 3구간)유적 서편에는 현재 수몰된 상태이지만 갈수기에 덮개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석묘군이 보고된 바 있고, 원천리, 간동면 유촌리·도송리, 사내면 광덕리·명월리에서도 지석묘가 지표조사를 통해 보고되었다.¹⁴⁾

위라리유적을 제외한 용암리·거례리·원천리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북한강변 층적지상에 청동기시대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형성된 취락유적으로서, 특히 양구·화천·춘천·가평 등 북한강 유역에 점토다짐구역이 설치된 주거형태로 대표되는 특징적인 후기 문화를 형성하여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5) , 2013, 『화천 거례리유적』.
 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용암리유적 II-화천 부다리고개 사토장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7)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화천 거례리 유적』.
 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a, 『용암리』.
 9)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b, 『화천 위라리 123번지 내 유적 시굴조사』, 『2006~2007년도 소규모 발굴비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0)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제이집.
 11) 예맥문화재연구원, 2009, 『화천 용암리유적』.
 12) 한백문화재연구원, 2013, 『화천 거례리유적』.
 13) 예맥문화재연구원, 2012, 『화천 원천리유적』.
 14) 강원대학교박물관, 1996, 앞의 책.

철기시대 유적은 거례리(3구간)유적과 원천리유적이 있다. 거례리(3구간)유적에서는凸·呂자형 주거지 5동과 소형 방형주거지 2동, 부뚜막 혹은 구들이 시설된 방형 주거지 5동이 조사되었고, 원천리유적에서는 116동의凸·呂자형 주거지가 확인되어 북한강 상류에서 확인된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분묘유적으로는 하남면 위라리, 원천리, 간동면 간척리에서 적석총이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위라리 적석총만이 확인된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거례리(1지구 4구간)유적과 거례리(1지구 5구간)유적에서 확인된 석실분 2기가 유일하며, 고려시대 이후의 유적으로는 관방유적인 성산성과 하리산성, 용화산성, 마산동산성 등이 있고¹⁵⁾,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 도·토기류와 청동수저¹⁶⁾가 있다.

2) 역사적 배경

화천 지역이 역사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三國史記』卷35(地理誌 2)에서 고구려 영토였음을 알리는 기록이다. 이때 화천은 생천군(牲川郡) 또는 야시매(也尸買)라 불리다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경덕왕 16년(757)에 낭천군(狼川郡)으로 개칭하였다. 당시 화천지역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낭천군은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백제가 한강 하류에 도읍을 정하고 한반도 중부지역을 차지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한강 상류에 위치한 낭천도 처음에는 백제의 영토였다고 짐작된다. 그러나 백제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력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백제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영서지역은 남쪽으로 임진강·한강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고구려 광개토왕의 공세와 다음 대의 장수왕이 428년에 평양으로 천도함에 따라 비로소 낭천은 고구려의 영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위세에 몰린 백제와 신라 두 나라는 각각 성왕·진흥왕 때에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한강유역에서 축출한 뒤 신라는 그 상류 10군을 차지하고, 이어 한강 하류 지역도 백제로부터 탈취하였다. 이렇게 보면 낭천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토였다가 5세기에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고, 6세기 중엽부터는 진흥왕의 북진에 따라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다고 판단된다. 551년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 영역 하의 한강유역을 공격할 때, 신라는 죽령 이북에서 고현 이남의 10군을 차지하게 된다. 이 10군의 위치는 대략 신라의 삭주와 거의 겹치는 것으로 본다. 선덕왕 6년(637)에 신라가 춘천에 우수주를 설치하면서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미 죽령 이북 고현(지금의 철령) 이남의 10군의 위치로 보아 화천은 진흥왕 때 이미 신라의 영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 1996, 앞의 책, pp.207~229.

1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앞의 책, p.492.



【도면 2】 해동지도(낭천현, 1750년대)에서의 조사지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대개 신문왕 7년(687)에 이르러 9주 5소경제의 완성을 보게 되는데, 옛 고구려 지역에는 한산주·수약주·하서주를 두었다. 낭천군은 수약주에 속한 군인데, 경덕왕 16년(757)에 수약주를 삭주로 개칭하였다. 후삼국 시절, 낭천은 당시 양길의 휘하에 있던 궁예에 의해 접수되었다. 효공왕 5년(901)에 궁예가 왕이 됨에 따라 이후 낭천은 궁예의 후고구려 영토였다.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된 뒤, 통일신라 이래의 9주5소경 제도를 12牧으로 개편한 것은 성종 2년(938)의 일이었다. 현종 9년(1018)의 지방제도 개편을 거쳐, 대체로 예종대(1106~1122)에 감무를 설치할 때까지 낭천은 교주도의 춘주 소관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속군(屬郡)이었고 이후 조선 태조 때에 다시 나뉘질 때까지 5도 양계제가 정착된다. 이후 화천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우왕 9년(1383) 왜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당시의 불교유적으로 계성리 석등(보물 496호)이 있는 계성사지와 7층 석탑(강원도유형문화재 제30호)이 남아 있는 위라리사지, 석불입상(강원도유형문화재 제115호)이 남아 있는 유촌리 성불사지, 간동면 간척1리의 탐구미 사지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낭천은 8도 중 다소 명칭의 변경은 있었지만 강원도의 1대도호부(大都護府)·1목(牧)·5도호부(都護府)·7군(郡)·12현(縣) 가운데 하나인 낭천현(狼川縣)으로서 태종 13년(1413)에 현감이 파견되었다. 군사상으로는 세조 3년(1457)에 오위제의 편성에 의해, 위흥위의 좌부로서 회양진관에 소속되어 절제도위가 통솔하게 되었다. 낭천현의 관방을 보면, 진산인 성산성이 있고, 남쪽으로는 용화산성을 두었다. 그리고 역으로는 방천·원천·산양역이 있어 강원도 역로의 하나인 은계도를 연결하고 있으며, 원으로는 대이원이 있었다. 수로 운송의 거점으로는 남진과 대이진이 있어 소양강창에 소속되었다. 한편 인조 22년(1644)에 낭천현을 폐하여 김화현에 합쳤으나 효종 4년(1653)에 다시 복구되었다. 영조 23년(1748)에 철원진영이 개설되자 낭천현은 조선말까지 철원진관에 소속되었다.

고종 32년(1895) 전국을 23부 331군으로 개편할 때, 낭천은 춘천부 소속 13개군의 하나가 되었다가 이듬해 전국을 13도로 나누었을 때 강원도 소속이 되었다. 광무 6년(1902)에는 용화산의 높고 아름다움을 본받으려는 뜻으로 화천(華川)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Ⅲ.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지역의 현황 및 조사방법

1) 조사지역의 현황

금번 조사지역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5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이곳은 화천군의 서쪽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지촌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촌천을 따라서 곡운구곡이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지역의 남동쪽에 제6곡인 와룡담이, 남서쪽에 명월계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 2】 곡운구곡과 화음정사의 위치

곡운구곡은 곡운 김수증(金壽增)이 설정·경영한 구곡동천(九曲洞天)이다. 김수증(1642-1701)은 청음 김상헌의 장손으로 서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과 스승처럼 벗하여, 산속에 곡운정사를 짓고 살면서 그 산수의 그윽함을 사랑하여 여기에서 늙었다고 평하고 있다.¹⁷⁾ ‘곡운구곡’은 김수증 이전부터 명승으로 알려져 매월당 김시습이 노닐었다고

17) “진 참판(參判) 김수증(金壽增) 이 졸(卒)하였으니, 나이 78세였다. 김수증 의 자는 연지(延之) 인데,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 의 장손(長孫)이다. 사람됨이 청수(淸秀)하여 한 점의 진태(塵態)가 없었다. 송시열(宋時烈) 을 스승처럼 벗하여 학식과 취향이 깊고 아름다워 시문(詩文)을 하는 데 담박하고 우아함이 그 사람과 같았다. 더욱이 전서(篆書)·주서(籀書)·팔분(八分)을 잘하여 공사간(公私間)의 금석문을 많이 썼다.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간간히 나와서 수령(守令)을 지냈으나, 또한 엄매여 있을 생각이 없었다. 만년에 춘천(春川) 의 곡운산(谷雲山) 속에 자리잡고 살았으니, 그 산수가 깊숙하고 그윽함을 사랑하여 마침내 여기에서 늙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를 고상하게 여기었다.” - 《숙종실록》 숙종 35권, 27년(1701 신사 / 청 강희(康熙) 40년) 3월 4일(신묘) 1번째 기사, 진 참판 김수증의 졸기(卒記).

하며, 김수증의 사후에도 많은 명사들이 찾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구곡동천의 하나였다. 정약용은 1823년(순조23) 4월에 ‘곡운구곡’을 자세하게 답사하고 《산행일기》에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특히 곡운구곡은 구곡시 뿐 아니라, 실경산수화풍의 <곡운구곡도>가 전해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곡운구곡도첩>에는 평양에서 초청한 화사 조세걸(曹世傑, 1635-1705)이 그린 10폭의 그림과 아들 조카들이 쓴 ‘곡운구곡도가’, 그리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발문까지 있다. 이해보아 곡운구곡이 조선 후기의 권문세가인 이들 안동김씨 가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은거지(隱居地)이자 별서(別墅)임을 알 수 있다.

영정을 모셔 둔 사당이 영당이다. 그러므로 곡운영당은 곡운 사후에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오원(吳瑗:1700~1740)은 「행곡운기(行谷雲記)」속에서 오후에 곡운선생의 영당에 가서 배알하였다고 적고 있다. 어유봉은 「동유기(東遊記)」에서 숲 있는 기슭에 암전하게 붉은 칠한 곳을 돌아보니 곡운선생의 영당이었다고 기록하였다. 남용익은 「유동음화약기(遊洞陰華嶽記)」에서 곡운선생의 사당을 찾아 초상에 배알했다고 적어놓았다. 곡운선생의 영당과 곡운선생의 사당은 동일한 건물을 말하며, 곡운선생의 초상이 걸려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인영(1782~1850)은 이곳에 들러 제갈공명과 김시습, 김수증, 김창협에 대한 시를 남겼으니, 네 사람의 영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기록들은 곡운영당이나 사당이라 적고 있는데, 정약용은 곡운서원(谷雲書院)이라 적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당 주변에 서원을 세웠던 것 같다. 영당터에 세워진 흥학비가 이를 말해준다. 곡운서원이 언제 폐허가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아마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1871년경)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곡운영당터는 보호책으로 둘러져 있으며 크게 3단의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윗단(1단)에 근래에 세워진 김수증선생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아랫단(2단)에는 곡운영당의 주춧돌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초석이 풀 사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 역시 주춧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돌의 상면이 일부 노출되어 있으며 오른쪽(동쪽) 가장자리 쪽으로는 흥학비가 세워져 있다. 흥학비는 하나의 돌로 비갓과 비신을 만들었고 앞면에 ‘부사이공용은흥○비(府使李公容殷興△碑)’라고 새겨져 있다. 뒷면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이용은은 철종 1년(1850)에 증광시과에 합격하여 춘천부사, 대사정, 이조참판 등을 지냈는데 1856~1957년에 춘천부사로 재직한 인물이다.

2) 조사방법

곡운영당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조사는 기본적으로 시굴트렌치를 설치하여 유구의 분포 범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전면제토하여 건물지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에 앞서 주변에 둘러져 있는 보호책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근래에 견치석으로 만든 축대를 제거하여 기존 영당지 축대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진 3】 조사 前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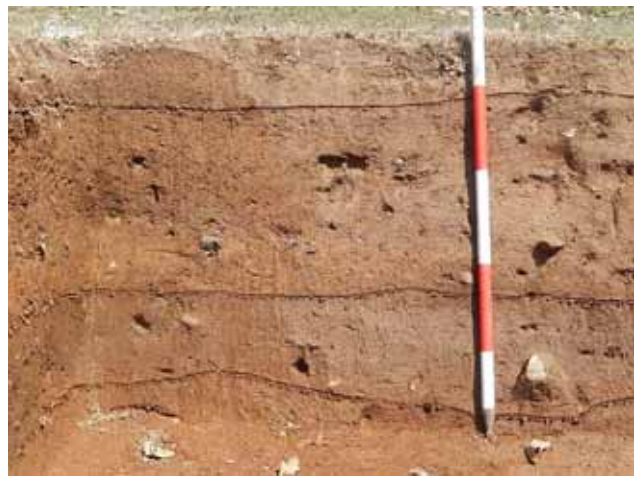
【도면 3】 지적도상의 조사지역 범위도

2. 조사내용

1) 토층

곡운영당지는 조사 전 이미 주춧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돌의 상면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으며 표토층과 암갈색 사질토층을 제거하자 곧바로 건물지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건물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토층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지 뒤쪽의 확장된 면을 기준토층으로 삼았다.

조사지역 내 토층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표에서부터 약 20cm까지는 제Ⅰ층인 표토 및 교란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아래로는 두께 약 33cm정도의 제Ⅱ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이며 토층내에서는 조선시대 기와 및 자기편을 포함하고 있다. 제Ⅲ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유구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층으로 구분된다. 그 아래로는 제Ⅳ층인 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유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순 퇴적층이다.

	제Ⅰ층 : 표토 교란층
	제Ⅱ층 : 암갈색 사질+점토층
	제Ⅲ층 : 흑갈색 사질+점토층(유구형성층)
	제Ⅳ층 : 갈색 사질+점토층

【사진 4】 조사지역 토층모습

2) 건물지

조사지역의 지형은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3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장 윗단에는 근래(1991년)에 세워진 김수증 선생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아랫단의 2단과 3단에 각각 건물지의 초석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2단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지를 ‘건물지1’로, 3단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지를 ‘건물지2’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물지 1

건물지 1은 김수증선생 추모비 아랫단(2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 전 이미 6개의 초석 상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출된 초석을 중심으로 전면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정면 중앙의 주칸거리 220cm, 좌우의 주칸거리 240cm이고 측면의 주칸거리는 270cm이며 면적은 약 18.9㎡(5.7평)이다. 초석 주위의 4면에는 수키와로 구성된 와열이 형성되어 있는데 건물지 기단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와열의 평면 규모는 가로 800cm, 세로 360cm이다. 초석은 적심석 없이 생

토 위에 그대로 놓아 사용하였으며, 일부 초석은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작은 돌을 받쳐 놓았다. 초석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편이며, 우측 앞쪽 모서리 초석의 크기가 60×50×25cm 정도이다.

건물지 1의 뒤쪽(북쪽)으로는 근래에 견치석으로 형성된 축대를 제거하자 기존 영당지의 축대가 노출되었다. 주로 냇돌을 사용하여 2~3단으로 형성되었으며 석재의 크기는 다양하다. 또한 건물지 1의 좌측(서쪽)에는 담장지의 기초석으로 추정되는 석렬이 건물지의 방향과 나란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표상에 노출되어 있었고, 대부분 제 위치를 이탈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나 형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건물지의 중앙칸 방향, 즉 축대 가운데에는 아랫단 폭 260cm, 윗단 폭 190cm의 계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계단은 주로 50×30cm 크기의 냇돌을 사용하여 6~7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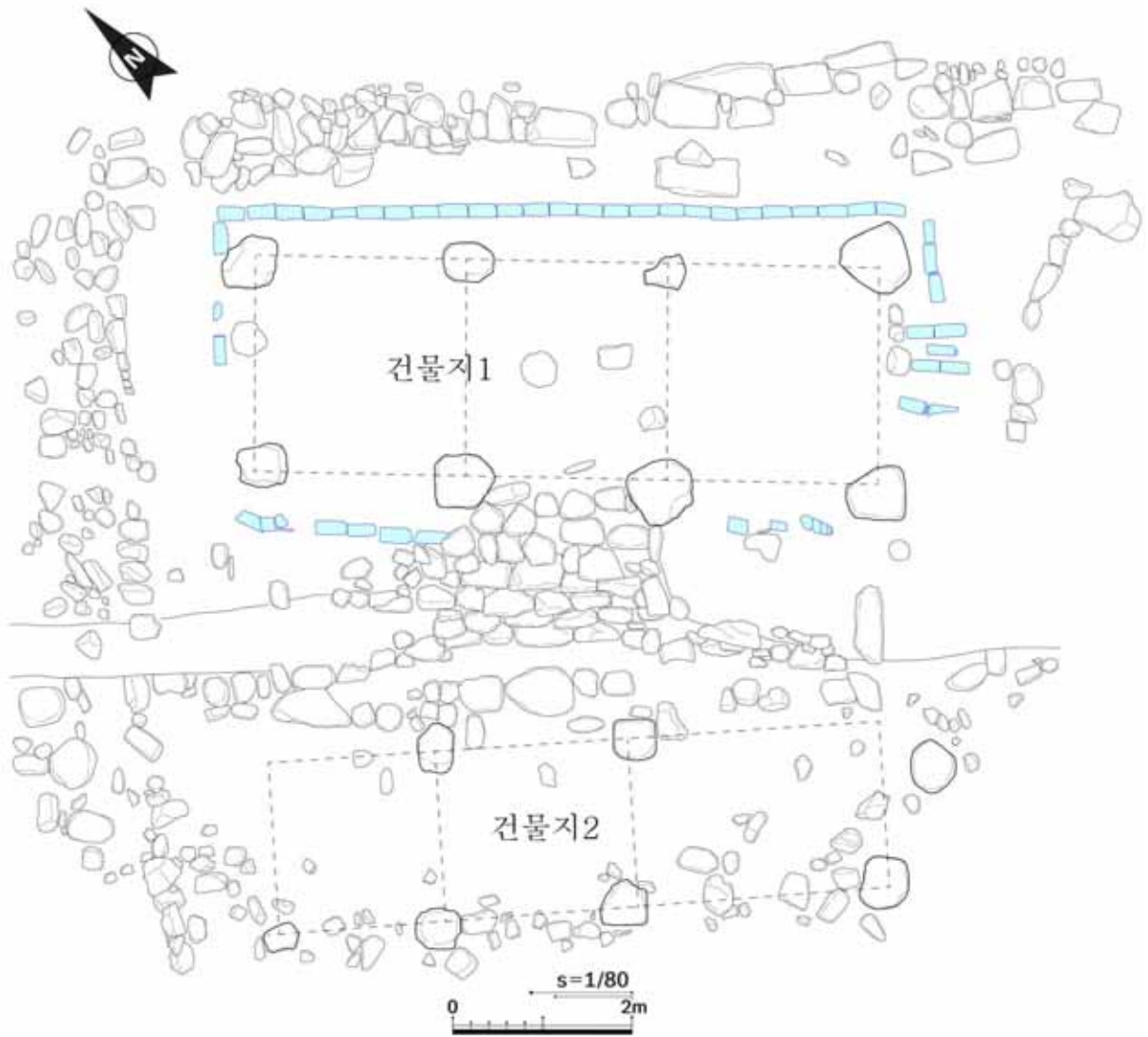
② 건물지 2

건물지 2는 건물지 1이 위치한 남쪽 아랫단(3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사 전 이미 4개의 초석 상면이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노출된 초석을 중심으로 전면 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규모는 정면 중앙의 주칸거리 210cm, 좌우의 주칸거리 180~290cm이고 측면의 주칸거리는 200cm이며 면적은 약 13.6㎡(4.1평)이다. 건물지 1과의 레벨차이는 약 1m정도가 난다. 초석은 건물지 1과 마찬가지로 적심석 없이 생토 위에 그대로 놓아 사용하였으며, 일부 초석은 결실되었거나 제 위치가 이탈되어 있다. 초석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편이며, 우측 앞쪽 모서리 초석의 크기가 60×50×25cm 정도이다.

건물지 2의 뒤쪽(북쪽)에는 근래에 견치석으로 형성된 축대가 있었는데 이를 제거하자 기존 영당지의 축대 흔적이 확인되었다. 축대는 근래의 견치석 축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 조사 後 전경(항공촬영)



【도면 4】 유구현황도(1:80)



【사진 6】 건물지 1 전경



【사진 7】 건물지 2 전경



【사진 8】 건물지1 기와열 모습



【사진 9】 건물지1 기와열 세부모습



【사진 10】 건물지1 초석 모습



【사진 11】 건물지1 동편 기와 모습



【사진 12】 건물지1 중앙부 계단 모습



【사진 13】 건물지2-계단-건물지1 모습

IV. 조사성과

1. 금번 발굴조사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885번지 일원으로 곡운 김수증 선생의 추모비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면적은 약 833㎡이다.

2. 조사결과, 조사지역 내에 초석건물지 2동과 초석건물지를 이어주는 계단이 확인되었다.

건물지1은 중앙의 주칸거리 220cm, 좌우의 주칸거리 240cm이고 측면의 주칸거리는 270cm이다. 건물지1은 초석 주변으로 수키와를 맞물려 놓은 기와열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지의 중앙칸 방향으로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랫단 폭 260cm, 윗단 폭 190cm이며, 50×30cm 크기의 냇돌을 사용하여 6~7단으로 형성되어 있다

건물지2는 정면 중앙의 주칸거리 210cm, 좌우의 주칸거리 180~290cm이고 측면의 주칸거리는 200cm이다. 두 건물지의 고도차는 약 1m정도이다.

3. 조사지역 내 출토된 유물은 조선시대 후기의 수키와 및 암키와 등 와전류가 대부분이며, 자기류 및 철제류 등이 소량 출토되었다.

V. 토의사항

1. 유적의 시기와 성격검토
2. 유적 보존대책 및 추후조사 검토
3. 기타 사항 검토

학술지문회의 자료 2017 - 3책

**화천 사내면 용담리(885번지) 곡운영당
건립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학술지문회의 자료**

발 행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주 소 | (2635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래울로 41

전화번호 | (033) 743-8916~7

F A X | (033) 743-8920



2017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Archaeological and Cultural Properties